

주간



Keep It Simple and Short

2019학년도 수능완성 W15(14~17, half of T1)




영어 노베이스에서 100점으로 이르기 위한 영어 공부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단어, 해석(문장 단위), 문풀(지문 단위).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바로, 세 번째 요소인 '문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는 국어, 수학에 비해 문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죠. 단어,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어 문풀은, 사상누각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적당한 난이도의 영어 빈칸 지문 하나를, ebs 해석 말고 정성을 들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잘 번역했다고 합시다. 그럼 글을 '이해'하는 데 우리는 한국인이므로, 큰 무리가 없겠죠. 그러면 문제를 푸는 '사고 논리' 자체는, 정말 스무살 지성인을 위한 수준일까요..? 대부분이 그 아래일 겁니다. 그러한 수준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현 절평 영어 체제에서 많아봐야 두 문제고, 이마저도 절평이기에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 상황이죠. 다시 말해, 단어를 제대로 알고 이를 활용해 해석이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수준이면 절평 영어 1등급에 거의 근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본인이 '공부하기 쉽게 느껴지는' 문제 풀이에 집착하지 마시고, 빨라도 6평까지는 단어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고민을 많이, 아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문풀 논리를 익히는 것은 6평 후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학생이라면 문풀 논리를 익히고 체화하는 건 한 두 달이면 됩니다. 제발, 수학 문제 하나를 두고 오래 고민하듯, 한 문장을 한 지문을 두고 어떻게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을 고민하세요.

그리고 이를, 'EBS 영어'로 하는 겁니다. 기출 영어만큼 지문의 문풀 논리가 좋은 지문이 많은 건 아니지만, EBS 영어 지문도 단어와 해석을 위한 '좋은 영어 지문'임은 맞으니까요. 무엇보다, 고3 내신의 시험 범위이고, 6, 9, 수능에 '똑같은' 지문이 7, 8 개가 나오는데, EBS가 아닌 다른 교재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평가원 기출 제외)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EBS 연계 교재 3권의 1000지문 가까이 되는 영어 지문의 모든 단어와 해석을 공부하면, 절평 영어 1등급에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평가원 기출로 문풀 논리를 병행하며 체화하고 그냥 100점 맞으세요 ☺

명심하세요. 고정 100, 고정 1이 나오는 친구들 중에, 문법 용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많습디다만, '해석'을 시켜보면, 예외 1도 없이, 다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곧잘 해석을 합니다.

1.  이와 같은 꺾쇠의 의미는, 지문을 보통 3등분 혹은 2등분을 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꺾쇠로 나뉜 각 덩어리는 ‘요약’ 부분의 각 번호와 일치합니다.
2.  화살표에는 이와 같이 일방향과 쌍방향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방향은 보통 답의 근거를 나타내며, 쌍방향은 두 단어, 문장이 반대의 의미임을 나타냅니다.
3.  의 의미는
 - a. 당연히, 중요 지문입니다. 부여 기준은 ‘평가원 변형 가능성 X 난이도’ 정도 되겠습니다. 가장 우선 순위는 ‘평가원스럽게’ 변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아무리 좋고 어려운 지문도 평가원 유형 변형이 되지 않으면 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노리는 변형 유형은, 가장 1순위로 ‘어휘, 빈칸, 순서, 삽입’입니다. 2순위로 ‘흐름X’를, 3순위로 ‘어법, 지칭’을 노립니다. 이 순위는 당연히, ‘가장 크리티컬하게 도움이 되는’ 순서입니다. 어휘, 빈칸, 순서, 삽입의 경우 본인이 박세게 공부한 EBS 지문이 나온다면, 지문 당 2, 3초컷을 하게 되는데 메인 유형인만큼 그러지 않은 사람이 2, 3분이 걸리는 데에 비해 ‘엄청난 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비연계’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리해 풀겠지요. 참고로 ‘흐름X’ 변형이 제가 두는 중요도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무난히 하나의 주제를 잘 말하고 있는’ 지문이면 변형 가능한 ‘흐름X’ 유형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 직전 최종 final 선별에는 이 ‘흐름X’ 변형 지문은, 효율성을 위해 대다수 빠질 수도,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 b. 당연히, ‘별표 지문만 보면 되나요? ㅎㅎ 헤 히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역할은 볼 지문과 안 볼 지문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우선 저는 신이 아닙니다. 매년 아깝게 놓치는 EBS 직접연계 지문이 1, 2개 씩 꼭 있습니다(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제 선별 개수를 고려했을 때 이미 효율성 甲이지만..). 그렇지만 매년 제 선별 지문에서 직접연계의 상당수가 나오므로, 그리고 나오지 않더라도, 제가 별표를 준 지문은 충분히 평가원의 관점에서 좋은 지문이라고 판단하고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므로, ‘영어 공부하기 좋은’ 지문이 되죠. 따라서 아무래도 효율성이 중요한 수험생의 특성상, 제 별표 지문(A)을 먼저, 또 여러 번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제가 별표를 주진 않았으나 변형을 했거나 아쉽다고 comment한 지문(B)을 그 다음, 그리고 나머지 지문(C)도 단어와 해석을 챙기며 보시기 바랍니다. A 지문은 7번, B 지문은 5번, C 지문은 3번 이상(단어를 다 암기한 상태에서) 해석하길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제발, ‘요약’만 보며 내용만 암기하는 짓은 지양하길 바랍니다. 지문 해석이 ‘주’이고, 제 요약과 변형은 ‘보조’입니다. 이 자료는 ‘영어 실력을 EBS로 늘리면서 연계도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손 해석은 다 해야 하나요??**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하길 바랍니다. 별표 지문은 웬만하면 손 해석을 전부 다하기를 추천합니다. 해당 지문이 ‘속발음’으로 해석이 술술 된다면(정말 되는 건 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길) 그 중 ‘잘 안 되는 문장’만 직접 손 해석 해보며 고민하고 교정하기 바랍니다. 별표 지문 외에도 본인이 해석 안 되는 지문은, 각 잡고 다 해석해봐야지요.
2. **6, 9평에 간접, 직접으로 나온 거 수능에 안 나오나요??** 평가원에서 ‘응 안 낼거야’라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You know what I mean? ‘경험적으로’는 6, 9평에 간접 및 직접으로 나온 게 다시 수능에 직접연계 핵심 지문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간접연계’ 지문의 경우, 좋은 지문이라면 해당 수능에 다시 나올 확률이 5%는 된다고 봅니다.
3. **단어 적으신 거 다 외워야 하나요??** 네.
4. **한 지문 분석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ㅠㅠ 그냥 핵심 내용만 잡고 넘어갈까요??** 우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본인의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실력이 늘면, 금방 하고 넘어갑니다. 단어나 해석이 막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한 지문 당 시간을 오래 투자하며 ‘제대로’ 단어 외우고 해석 하고, 다시 그 지문을 여러 번 반복 해석하는 작업을 하며 지문들을 본다면 영어 실력이 급상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영어 실력은 계속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계속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수박을 까서 맛있게 먹을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 **단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외우시라고요. 단어 외우는 건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싫어합니다. 그만큼 이 ‘영단어 암기’라는 것이 본인의 ‘절실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한 친구는, 밥먹으면서도 외웁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는 보통 좋은 결과를 내더군요. 단어가 없으면 총을 쏠 수도,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6. **구문 공부 따로 해야 할까요??** 이는 썸마다 개인 차가 있으나, 저는 ‘실전파’입니다. EBS 지문을 바로 실전으로 해석하면서 ‘아 이런 패턴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를 계속 익히다 보면, 결국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됨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영어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다면, 인강이나 책으로 한 번 정리하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7. **이번 6평 29번과 같은 유형이 9평, 수능에도 계속 나올까요??** 그걸 제가 알면 지금쯤 로또 당첨되어 이 자료를 만들고 있지 않을 거 같습니다 ㅎㅎ. 모릅니다. 9평 가봐야 알고, 9평에 나온다 해도 그게 수능에 나오리란 보장은 없고, 9평에 안 나왔다고 수능에 안 나오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 ‘변형포인트’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계속 얘기하지만, 해당 지문을 ‘여러 번 해석’해서 아예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럼 어떠한 유형으로 나와도 3초 컷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해석하느라 늘은 영어 해석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1. EBS 연계 교재 해당 '강'을 시간을 재고 본다. 본인의 실력과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문제 당 1~2분을 설정하고 본다. 시간을 재고 풀어야 가장 집중을 잘한다. 뇌는.
2. 채점을 한다. 혹,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 많이 틀린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문풀의 기준은 평가원 기출.
3. 꼭, 이 자료를 보기 전 지문을 보며 '혼자' 해석을 해본다. 제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해석이 잘 되는가, 객관적으로 본인을 체크한다. 모르는 단어, 잘 안 되는 해석 부분을 체크한다.
4. 자료의 요약, 단어, 변형을 보며 내용, 어휘, 변형 논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자료에 없으나 추가적으로 모르는 단어는 꼭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봐 찾아 적는다.
5. 각 문제 분석 페이지 다음에 있는 해석 공간에서 시간을 재고 해석을 한다. 본인의 실력, 지문의 난이도 및 길이에 따라 한 지문 당 짧게는 5분(1등급)~길게는 10분으로 꼭 시간을 재고 한다. 시간을 재고 해석해야 늘어지지 않고, 집중을 가장 잘한다. 뇌는.
6. 해석을 하다가 10초 정도 고민했으나 모르는 부분, 문장은 '비워두고' 넘어가서 해석을 한다. 우선은 정해진 시간 내에 지문 하나를 다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7. Shean.T의 해석과 비교를 하며 맞추어 보고, 비워둔 부분을 Shean.T 해석과 검색 및 질문을 통해 해결한다. 이 비워둔 부분은 '빨강색' 볼펜으로 채우는 게 좋으며, 그 부분을 본인의 '오답 해석 노트'에 옮겨 적는다. 이게 바로 본인의 비장의 노트.
8. 복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 주간의 KISS EBS를 끝내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구두로' 다시 한 번 지문 해석들을 꼭 해본다. 이러면서 영어 단어, 표현, 문장 구조, 해석 능력이 자꾸 체화가 되는 거다. 한 파트(수특영어 유형편, 주제소재편, 테스트 이렇게 세 개의 파트 정도로 볼 수 있다)가 끝나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 복습 해석!
9. 급격히 향상된 어휘력, 해석력 그리고 EBS 연계의 도움으로 가볍게 1등급을 맞는다.
10. 여러 곳에 감사의 후기를 올려주면 정말 감사하다.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첫번째, ‘순차적으로’부터 살펴보자면,

1. 순차. 영어 한 문장이 있으면, 그 한 문장의 맨 끝을 앞으로 가져오는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소위, 그 유명한 ‘직독직해’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아래 16학년도 수능 문장을 보시면,

It is likely that age changes begin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at different times and that the rate of annual change varies among various cells, tissues, and organs, as well as from person to person. (15.11.23)

a. 나이 변화는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시기에 시작하며 매년 변화의 속도 또한 사람마다, 그리고 다양한 세포, 조직, 기관에 따라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X)

b. 가능성이 높다 / 나이 변화가 시작할 / 몸의 다른 부분에서 / 다른 시기에 / 그리고 매년 변화의 속도는 다양할 / 세포, 조직, 기관마다 / 또한 사람들마다. (O)

a의 해석은 사실상 해석이 아니라 ‘번역’이다. 이 일은 번역사가 하는 것이고, ‘독해’를 하는 수험생이 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빠르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의미 파악’**이다. 따라서 b와 같이 앞에서부터 쪽 가면서, **‘본인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 구조 단위’**로 묶고,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실전적인 해석’이다.

B에서 볼 수 있듯이 포인트는 어떻게 한국어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이 영어 단어와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면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사를 잘 써야, 단어와 단어, 덩어리와 덩어리가 잘 연결된다. **이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하고, 영어 고정 1등급은 해석을 시켜보면 이걸 잘한다.**

‘어디서 끊느냐’ 하는 것에 정답은 없다. 본인이 한 문장이 쪽 한 눈에 들어오고 의미 파악이 된다면 끊을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한 눈에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대충 쪽 가는 것은 킬러 수능 영어 문제를 푸는 데 그리 좋지 않다. 한국어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부분이 제일 좋고, 필자는 전치사, 관계사, 접속사 앞에서 주로 끊는다. 참고!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두번째, '자연스럽게'를 살펴보자면,

2. 자연. 어떠한 단어, 혹은 어떠한 의미 덩어리를 제발 본인이 외운 그 사전의 첫번째 뜻으로 마구 넣어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자. 물론, 우선 해당 단어의 사전 첫번째 뜻을 외우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기는 하다. 하지만 해석을 할 때에는, 그 외운 뜻을 바탕으로 문맥상 어떻게 자연스럽게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전환 과정이 없이 그냥 외운 뜻을 넣기만 하게 되면,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닌 무엇이 되고, 뇌가 어색하게 느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게 된다.

예를 들어, establish라는 단어는 '설립하다'로 외웠을 것이다. 이 '설립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의 기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맥에 따라 '맞는 한국어'로 바꿔 해석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Establish order(질서)라고 했다고 하자. 한국어로, '질서를 설립하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설립은 보통 재단, 기관을 설립하지 질서를 설립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하면서 '질서'와 어울리는 한국말은? 바로 '질서를 확립하다.' 또한, established experts가 있다고 하자. 직역하면 '설립된 전문가들'인데, 역시나 이걸 한국어가 아니다. 하지만, '설립된'을 통해 무슨 '느낌'인지는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와 연결시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떠올린다. '이미 설립된.. 이미 세워졌구나.. 전문가가 이미 설립돼서 자리를 잡았어..' 아, '이미 자리를 잡은' 전문가들이구나. '인정 받는', '저명한'까지 가도 우리가 없고 다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것이다. '쌘! 저명한이라뇨, prominent가 아닌데요?'라는 우매한 생각에서 벗어나 얼른 '이유 있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다.

해석에 정답은 없다. '어울리는 지 아닌 지'만 있을 뿐. 아래 14학년도 B형(헬영어) 수능 문장을 보자.

Each year more farmland was devoured to build strip malls and neighborhoods with larger homes. (13.11.43)

매년 더 많은 농경지가 / 게걸스럽게 먹혀진다(?) / 길가 상점들을 짓기 위해 / 그리고 인근에 큰 집들을 짓기 위해

걸리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온다. 농경지가 게걸스럽게 먹혀진다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우선 기본적으로 'devour'가 '게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라는 건 이미 외웠어야 한다. 다음 스텝은 이걸 어떻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다. 자 '상황'은 농경지를 상점과 집들로 바꾼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was devoured를 '바꿨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의미가 명확하게 통하니까. 여기에 devour의 느낌까지 살리자면, '농경지를 갈아 엮다'까지 갈 수 있겠다. 황무지를 논으로 바꾸는 뜻이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개간'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고, 한국어가 좋은 친구들이라면 위의 '바꿨다'는 뜻에서 '전용된다'는 해석도 할 수 있겠다. 정답은 없다. 위와 비슷한 의미로 '본인이' 떠오른 단어를 쓰면 된다. 단, 한국어로 자연스러우면 된다. + 한국어로 자연스러우려면 'they, them'을 제발 '그들은, 그들을' 그만하고, 뭘지 파악해서 정확히 한국어로 풀어주도록 하자!

명심하자. 영어는 '언어'이고, '상식'이다. 한국어의 상식에서 움직이자.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세번째, '단순하게'를 살펴보자면,

3. 단순. 긴 문장은 정말 길다. 그리고 다른 모의평가도 아닌 '수능'을 보게 되면, 난이도가 쉬워도 대의파악(주제, 제목..)부터 한 지문에 몇 줄이 되는 긴 문장이 꼭 있다. 이렇게 긴 문장에서 보통은 지레 겁먹게 되고, 하나 하나 다 해석하려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더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긴 문장일수록, 어떻게 덩어리로 묶어 '핵심 단어'를 기준으로 '단순화'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아래 14학년도 B형(헬영어) 수능 빈칸 문장을 살펴보자.

This intentional error functions as an advance warning system, manned by the self-protection subself, providing individuals with a margin of safety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potentially dangerous approaching objects. (13.11.34)

어렵다. 길어도 긴 편이고, 단어도 만만치가 않다. 굳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 고의적인 오류는 기능한다 / 조기 경보 체계로서, / 자기 보호 자아를 통해 인간이 사용하는, / 인간에게 약간의 안전을 제공하면서 / 직면했을 때 / 위험하게 다가오는 물체에.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수능 시험장에서 저 문장을 이 정도 수준으로 즉석에서 해석할 수 있는 수험생도 거의 없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오질 않는다. 이 full sentence를 어떻게, 덩어리 별로 핵심 단어를 콕아서, '단순화'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장에 대한 '실전 해석'이다. 이에 따라 재구성 해보면,

이 고의적인 오류는 기능한다 / 경고 시스템으로 / 인간이 사용하는 / 안전을 제공하면서 / 위험한 물체에 직면했을 때

'진하게' 처리된 단어가 내용 전달의 '핵심'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내가 '단순화'하여 이해해야지 만이 읽고나서 무슨 말인지 기억에 남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저에는, 잘 살펴보면, 역시 각 덩어리를 잇는 '조사'에 핵심으로 걸리는 단어를 고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고의적 오류는 기능한다. 뭐로서(as)? 경고 시스템으로서. 뭐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뭘 제공하면서? 안전을. 언제? 위험할 때. 이런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단순화' 해석은 실전적 해석으로, 본인의 해석력을 늘려야 하는 공부에서는(이 EBS 지문을 통한 해석 공부처럼), 웬만하면 단순화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고, 다 자연스럽게 해석해보려 연습하자. 역설적으로,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해석할 줄 알아야, 다 파악을 하고 뭐가 중요한지 알아서, '단순화'한 해석이 된다.

해당 자료의 지문 자체를 제외한 모든 내용
즉, 요약, 변형 포인트, 어휘 정리, 직독직해의 내용은
Shean.T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Shean.T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특히,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한 부’만 구매한 뒤
이를 출력하여 다수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사교육이지만 그래도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제해주시고,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다수에게 이 자료를 배포할 경우,
인원수만큼 구입을 하시거나,
sheanlee23@gmail.com으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혹 본인이 다니는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위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필자가 잘 못 먹고, 잘 못 자가면서 만든 창작물을,
단지 전자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해당 자료에 해당하는 저자의 무료 강의를 유튜브에서 공개합니다.
‘Shean 영어’ ‘Shean EBS’ 치시면 나오니 ‘구독’해주세요.
자료와는 별개로 자비를 들여 정말 무료로 공개하는 강의이니,
(자금난으로 수능완성은 현재 촬영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자료 홍보 많이 해주세요 ㅎㅎ)
추가적인 여러 요청을 들어드리는 것은 조금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Shean.T 드림.

해당 자료의 지문 자체를 제외한 모든 내용
즉, 요약, 변형 포인트, 어휘 정리, 직독직해의 내용은
Shean.T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Shean.T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특히,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한 부’만 구매한 뒤
이를 출력하여 다수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사교육이지만 그래도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제해주시고,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다수에게 이 자료를 배포할 경우,
인원수만큼 구입을 하시거나,
sheanlee23@gmail.com으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혹 본인이 다니는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위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필자가 잘 못 먹고, 잘 못 자가면서 만든 창작물을,
단지 전자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해당 자료에 해당하는 저자의 무료 강의를 유튜브에서 공개합니다.
‘Shean 영어’ ‘Shean EBS’ 치시면 나오니 ‘구독’해주세요.
자료와는 별개로 자비를 들여 정말 무료로 공개하는 강의이니,
(자금난으로 수능완성은 현재 촬영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자료 홍보 많이 해주세요 ㅎㅎ)
추가적인 여러 요청을 들어드리는 것은 조금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Shean.T 드림.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4강: 순서, Check



Helmets are a good idea in big surf, especially if you are surfing alone, in extra crowded conditions, or if it is **offshore** (your board may **spin out of sight** high in the air, then come **crashing down onto** your head). An **optimal** helmet for big-wave surfing has not yet been designed. The problem is that most helmets' wider **profile** prevents your head from entering the water smoothly. (1) This can result in a whiplash-type injury to your neck, but worse, it may **amplify** wipeout-associated **acceleration-deceleration** brain microtrauma. (2) Such repeated head trauma over many years, probably more common in big-wave riders, may lead to a slowing of brain function and has been called shaken surfer syndrome. (3) It is similar to what is seen in boxers and football players from repeated head trauma. (4) To **lessen** your number of wipeouts is to lessen your **chance** of getting shaken surfer syndrome.

* wipeout: (서핑 중에 보드에서 떨어져서) 넘어지기, 와이프아웃 ** whiplash: 경추 손상, 목뼈 손상 *** microtrauma: 미세 외상



1. 헬멧은 큰 파도 서핑에 꼭 필요한데, 아직 최적의 헬멧이 고안되지 X
2. Problem: 헬멧 측면이 넓음 → 경추 손상이나 뇌 손상으로 이어짐 → 뇌 기능 저하(흔들린 서퍼 신드롬)
3. 이는 축구, 복싱 선수도 마찬가지. 서핑할 때 자빠지는 수를 줄여야 흔들린 서퍼 신드롬 가능성 줄음!



1. 변형: 흐름X. (1)~(4) 문장은 모두 서핑으로 인한 뇌손상(흔들린 서퍼 신드롬)을 설명(3번 문장도 결국 같은 범주). 서핑을 할 때 다른 유의점 나오거나 하면 탈락!



1. offshore: 앞바다의
2. spin out of sight: 시야에서 벗어나다
3. crash down onto: ~로 부딪혀 부서지다
4. profile: 측면
5. amplify: 증폭시키다
6. acceleration-deceleration: 가감속
7. lessen: 줄이다
8. chance: 가능성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4강: 순서, Check

Helmets are a good idea in big surf, especially if you are surfing alone, in extra crowded conditions, or if it is offshore (your board may spin out of sight high in the air, then come crashing down onto your head). An optimal helmet for big-wave surfing has not yet been designed. The problem is that most helmets' wider profile prevents your head from entering the water smoothly. This can result in a whiplash-type injury to your neck, but worse, it may amplify wipeout-associated acceleration-deceleration brain microtrauma. Such repeated head trauma over many years, probably more common in big-wave riders, may lead to a slowing of brain function and has been called shaken surfer syndrome. It is similar to what is seen in boxers and football players from repeated head trauma. To lessen your number of wipeouts is to lessen your chance of getting shaken surfer syndrome.

* wipeout: (서핑 중에 보드에서 떨어져서) 넘어지기, 와이프아웃 ** whiplash: 경추 손상, 목뼈 손상 *** microtrauma: 미세 외상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4강: 순서, Check

Helmets are a good idea in big surf, especially if you are surfing alone, in extra crowded conditions, or if it is offshore (your board may spin out of sight high in the air, then come crashing down onto your head). An optimal helmet for big-wave surfing has not yet been designed. The problem is that most helmets' wider profile prevents your head from entering the water smoothly. This can result in a whiplash-type injury to your neck, but worse, it may amplify wipeout-associated acceleration-deceleration brain microtrauma. Such repeated head trauma over many years, probably more common in big-wave riders, may lead to a slowing of brain function and has been called shaken surfer syndrome. It is similar to what is seen in boxers and football players from repeated head trauma. To lessen your number of wipeouts is to lessen your chance of getting shaken surfer syndrome.

* wipeout: (서핑 중에 보드에서 떨어져서) 넘어지기, 와이프아웃 ** whiplash: 경추 손상, 목뼈 손상 *** microtrauma: 미세 외상

헬멧을 쓰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 큰 파도타기에서, / 특히 니가 혼자 파도 타고 있다면, / 완전 혼잡한 환경에서, / 혹은 만약 앞바다에서라면 / (니 보드가 시야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 / 하늘 저 높이, / 그럼 니 머리 위로 떨어져 충돌할 수 있다). / 큰 파도타기에 최적화된 헬멧은 / 아직 디자인되지 않았다. / 문제는 바로 대부분 헬멧의 널찍한 측면이 / 니 머리가 물 속으로 부드럽게 들어가는 걸 막는다는 것이다. / 이는 경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 목에, / 하지만 더 최악은, / 와이프아웃과 관련된 가속-감속 미세 뇌 외상을 증폭시킬 수 있다. / 그러한 반복적인 뇌 손상은 / 수년 간에 걸친, / 아마 큰 파도를 타는 사람들에게 더 흔한, / 뇌 기능 둔화로 이어질 수 있고 / 이는 흔들린 서퍼 신드롬으로 불려왔다. / 이는 유사하다 / 복서와 축구 선수에게 보여지는 것과 / 반복된 뇌 손상으로. / 와이프아웃의 수를 줄이는 것은 / 흔들린 서퍼 신드롬이 생길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다.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4강: 순서, 1번

Whenever competitiveness is an issue, market area is a key issue. The market for some goods and services is local. For others it is regional, national, or international. **Plumbing repair** is a locally provided service. It may be supplied **competitively** in some areas, but not in others. **Automaking** is a global business. The number of auto producers worldwide is important. The number in each specific place is nearly **irrelevant**. The **reverse** is true of plumbing repair. **A one-plumber town is a monopoly**, even if there are many plumbers elsewhere. By itself, however, the one-plumber situation is not a major problem. If the plumber performs poorly, **charges** extraordinary **rates**, or just can't **keep up with the demand**, the monopoly probably will **vanish**. **Migration** and training programs can deliver new plumbers. Except for natural monopolies, monopolies survive only if shielded by high **entry barriers**.



Summary

1. 시장 경쟁력에 관해서는 시장 범위가 지방 도시 단위인지, 지역, 국가, 국제 범위인지가 중요
2. A: 자동차 제조는 전세계적인 제조사 수가 중요 vs. B: 배관 수리는 특정 마을의 배관공 수가 중요
3. 마을의 배관공이 독점해서 갑질을 해도 다른 배관공 도입 가능하니 문제 나. 독점은 높은 진입장벽 필요!



KEY Point

1. 지문 무난히 좋음. 대의파악 연계 가능하니 A,B 잡으며 꼭 해석해보기!



Vocabulary

1. Whenever S V,: ~할 때마다
2. plumbing repair: 배관 수리
3. competitively: 경쟁력 있게
4. automaking: 자동차 제조
5. irrelevant: 무관한
6. reverse: 반대, 역
7. monopoly: 독점
8. to charge rates: 비용을 청구하다
9. keep up with the demand: 수요를 따라가다
10. vanish: 사라지다
11. migration: 이주
12. entry barrier: 진입장벽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4강: 순서, 1번

Whenever competitiveness is an issue, market area is a key issue. The market for some goods and services is local. For others it is regional, national, or international. Plumbing repair is a locally provided service. It may be supplied competitively in some areas, but not in others. Automaking is a global business. The number of auto producers worldwide is important. The number in each specific place is nearly irrelevant. The reverse is true of plumbing repair. A one-plumber town is a monopoly, even if there are many plumbers elsewhere. By itself, however, the one-plumber situation is not a major problem. If the plumber performs poorly, charges extraordinary rates, or just can't keep up with the demand, the monopoly probably will vanish. Migration and training programs can deliver new plumbers. Except for natural monopolies, monopolies survive only if shielded by high entry barriers.

경쟁력이 문제가 될 때마다, / 시장 지역이 핵심 이슈이다. / 몇 몇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은 현지에서 이루어진다. /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 / 광범위한 지역, 국가, 국제 범위이다. / 배관 수리는 현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 이는 몇 몇 지역에서는 경쟁적으로 공급될 수도 있다, /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 차량 제조는 글로벌 비즈니스다. / 전세계에 걸친 차량 제조사의 수가 중요하다. / 각 특정 장소의 수는 거의 관련이 없다. / 배관 수리에 서는 반대가 맞다. / 배관공이 한 명 있는 마을은 독점이다, / 다른 곳에 많은 배관공이 있을지라도. / 하지만 그 자체로, / 배관공이 한 명 있는 상황이 주요 문제는 아니다. / 만약 그 배관공이 일을 잘 못 한다면, / 너무나 많은 비용을 청구한다면, / 혹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 그 독점은 아마 사라질 것이다. / 이주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배관공을 들일 수 있다. / 자연적 독점을 제외하고는, / 독점은 살아남을 수 있다 / 높은 진입 장벽으로 보호가 될 때에만.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4강: 순서, 2번

Young children certainly are not fully **rational** and **autonomous** (to the degree of normal competent adults) and thus clearly cannot be held to enjoy the basic Autonomy Right of having their destinies determined by their own choices and decisions. However, there is one very good reason for often treating them as if they had such a right. Treating children as though they are autonomous **aids** them in developing into **genuinely** autonomous persons; treating them as responsible persons aids them in becoming responsible persons. Such “**fictions**” have a way of becoming **self-fulfilling prophecies**. We shall, of course, want to **place limits on** such treatment **in the interest of** the child and pick our instances of fictional autonomy **ascription** wisely. For example, if a small child decides that he does not want to take the penicillin prescribed for a **streptococcus infection** in his throat, this would be a bad case in which to let his decision **prevail** in the interest of developing future autonomy.



Summary

1. Cause: 어린 아이들은 완전 합리성, 자율성 완전 X → 자신의 운명을 자율적으로 선택 못함
2. However, 아이들을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대하면 자성적 예언에 따라 정말 그렇게 될 확률 ↑
3. 당연히 이에 제한은 있어야. Ex.: 아이가 약을 안 먹으려 하는데 자율성 존중해서 그러라 하면 안 되잖아.



KEY Point

1. 지문 ㄱ ㄷ. 대의파악 연계용으로 단어 및 해석 챙겨요 :) 자성적 예언은 ebs 단골 손님!
2. ascription은 사실 수능 단어라고 보기는.. ascribe A to B(A의 원인을 B로 돌리다)가 attribute A to B의 더 어려운 표현이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Vocabulary

1. rational: 합리적인
2. autonomous: 자율적인
3. aid(v): 돕다
4. genuinely: 진짜로
5. fiction: 허구
6. self-fulfilling prophecy: 자성적 예언
7. place limits on: ~에 한계를 두다
8. ascription: (의미) 부여
9. in the interest of: ~의 이익을 위해
10. streptococcus infection: 연쇄구균 감염
11. prevail: 우세하다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4강: 순서, 2번

Young children certainly are not fully rational and autonomous (to the degree of normal competent adults) and thus clearly cannot be held to enjoy the basic Autonomy Right of having their destinies determined by their own choices and decisions. However, there is one very good reason for often treating them as if they had such a right. Treating children as though they are autonomous aids them in developing into genuinely autonomous persons; treating them as responsible persons aids them in becoming responsible persons. Such “fictions” have a way of becoming self-fulfilling prophecies. We shall, of course, want to place limits on such treatment in the interest of the child and pick our instances of fictional autonomy ascription wisely. For example, if a small child decides that he does not want to take the penicillin prescribed for a streptococcus infection in his throat, this would be a bad case in which to let his decision prevail in the interest of developing future autonomy.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4강: 순서, 2번

Young children certainly are not fully rational and autonomous (to the degree of normal competent adults) and thus clearly cannot be held to enjoy the basic Autonomy Right of having their destinies determined by their own choices and decisions. However, there is one very good reason for often treating them as if they had such a right. Treating children as though they are autonomous aids them in developing into genuinely autonomous persons; treating them as responsible persons aids them in becoming responsible persons. Such “fictions” have a way of becoming self-fulfilling prophecies. We shall, of course, want to place limits on such treatment in the interest of the child and pick our instances of fictional autonomy ascription wisely. For example, if a small child decides that he does not want to take the penicillin prescribed for a streptococcus infection in his throat, this would be a bad case in which to let his decision prevail in the interest of developing future autonomy.

어른 아이들은 확실히 완전 이성적이거나 자율적이지 않다 / (보통의 능력 있는 어른 정도로) / 따라서 즐길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기본적 자치권을 /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 하지만,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 / 종종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 아이들을 다루는 것은 / 이들이 자율적인 것처럼 / 이들을 도와준다 / 정말 자율적인 사람으로 발달시키는 데; / 이들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 이들을 돕는다 /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 그러한 “허구”는 자성적 예언이 되는 방법이다. / 당연히 우리는 제한을 두고 싶어할 것이다 / 그러한 아이 대우에 / 아이를 위해서 / 그리고 예를 고르고 싶을 것이다 / 허구적 자율성 부여를 현명하게. / 예를 들어, / 작은 아이가 결심한다면 / 페니실린을 복용하고 싶지 않다고 / 연쇄상구균 감염 때문에 처방된 / 그의 목에, / 이는 좋지 않은 예가 될 것이다 / 그의 결정이 우세하게 놔두는 / 미래의 자율성 발달을 위해.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4강: 순서, 3번

Goals can be short term or long term; they can involve the workplace and career **advancement**; they can involve family and **domestic** matters; they can refer to a leisure or sporting activity. In the case of all goals, however, we can divide the factors that determine success or failure into two classes: those which we would see as **motivational** and those which we would not. Take **academic achievement**, for example. It is obvious that people have a better chance of such achievement in our society if they come from a higher socioeconomic class, if they have enjoyed better schooling, and, assuming that all are not born equal, if they have greater native ability. These and other factors **make up** the class of non-motivational **determinants** of achievement. However, we all know that even when individuals appear to be matched fairly well on these sorts of factors, even when we can assume some realistic **equality of opportunity**, there are nevertheless those who seem to achieve more simply because they try harder, **persist** longer.



Summary

1. 목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동기부여가 안 되는 요인(A)과 되는 요인(B)으로 나눌 수 있음
2. Ex.: 금수저들은 교육을 잘 받으니 학업 성취도를 높게 받을 가능성이 많음 → A가 될 수 있음
3. However, despite A, 누군가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더 열심히, 오래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함



KEY Point

1. 내용도 아이들에게 참 좋고 괜찮은데 변형이 없 ㅠㅠ
2. Nevertheless, you carry on with what you do.



Vocabulary

1. advancement: 진보, 발전
2. domestic: 국내의, 가정의
3. motivational: 동기부여가 되는
4. academic achievement: 학업 성취도
5. make up: 구성하다
6. determinant: 결정 요인
7. equality of opportunity: 기회의 평등
8. persist: 오래 지속되다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4강: 순서, 3번

Goals can be short term or long term; they can involve the workplace and career advancement; they can involve family and domestic matters; they can refer to a leisure or sporting activity. In the case of all goals, however, we can divide the factors that determine success or failure into two classes: those which we would see as motivational and those which we would not. Take academic achievement, for example. It is obvious that people have a better chance of such achievement in our society if they come from a higher socioeconomic class, if they have enjoyed better schooling, and, assuming that all are not born equal, if they have greater native ability. These and other factors make up the class of non-motivational determinants of achievement. However, we all know that even when individuals appear to be matched fairly well on these sorts of factors, even when we can assume some realistic equality of opportunity, there are nevertheless those who seem to achieve more simply because they try harder, persist longer.

목표는 단기일수도, 장기일수도 있다; / 목표는 직장과 커리어 개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가족, 가정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여가 혹은 스포츠 활동을 가리킬 수도 있다. / 하지만 모든 목표의 경우에, / 우리는 요인을 나눌 수 있다 / 성패를 결정하는 / 두 계층으로: / 우리를 동기부여 시키는 것과 / 그렇지 않은 요소로. / 학업 성취도를 예로 들어보자. / 명백하다 / 사람들이 더 높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건 /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성취도의 / 더 높은 사회경제적 계층 사람이라면, / 더 나은 학교 교육을 누렸더라면, /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나는 건 아니라는 가정에서, / 만약 더 훌륭한 선천적 능력이 있다면. / 이러한 그리고 다른 요인들은 구성한다 /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결정 요인 부류를 / 성취에 있어. /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 개개인이 꽤나 잘 부합할지라도 / 이러한 종류의 요인에, / 우리가 현실적 기회의 평등을 추정해볼지라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있다 /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 이들은 단순히 더 노력하고, 더 오래 지속하기 때문에.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4강: 순서, 4번



Contributing to other people's newsletters with articles or inserts is an inexpensive and excellent way to reach new markets and **tap into** the captured customers of another business. Most newsletter publishers welcome submissions from others because finding content for newsletters is an **ongoing (A)challenge**. If you provide them with non-competing information, you can easily **(B)gain access to** another company's newsletter. **For** example, a massage therapist might submit to a chiropractor's newsletter. The services are similar enough to **appeal to** the same audience, but different enough to offer **distinct** services. **You** can either submit a story, or provide an insert to the newsletter publisher. In the **(C)latter** case, it works much like a joint mailing. You help defray the cost of mailing the newsletter **in exchange for** letting your insert **ride along**. Both **parties** win.

* insert: 삽입 광고 ** defray: 부담하다 *** chiropractor: 척추 지압 요법사

Summary

1. 소식지 소재는 항상 부족 → 다른 사업자의 소식지에 기고 → 돈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홍보 가능
2. Ex.: 둘이 비슷하지만 분명 다름 → 마사지사기 척추 요법사 소식지에 자기 광고 같이 전달 가능
3. 타 사업 소식지에 내 광고지를 끼워 넣으면 우편 비용도 아끼고 홍보도 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KEY Point

1. 변형: 어휘. (A) challenge / certainty(확실한 것), (B) gain / lose, (C) latter / former(전자의)

Vocabulary

1. contribute to (매체): ~에 기고하다
2. tap into: approach
3. ongoing challenge: 지속적인 과제
4. gain access to N: ~에 접근 기회를 얻다
5. submit: 제출하다
6. appeal to N: ~에 호소하다
7. distinct: 별개의, 구분되는
8. publisher: 출판(발행)사
9. latter: 후자의
10. a party: 당사자
11. in exchange for: at the expense of(~을 대가로)
12. ride along: 같이 타고 가다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4강: 순서, 4번

Contributing to other people's newsletters with articles or inserts is an inexpensive and excellent way to reach new markets and tap into the captured customers of another business. Most newsletter publishers welcome submissions from others because finding content for newsletters is an ongoing challenge. If you provide them with non-competing information, you can easily gain access to another company's newsletter. For example, a massage therapist might submit to a chiropractor's newsletter. The services are similar enough to appeal to the same audience, but different enough to offer distinct services. You can either submit a story, or provide an insert to the newsletter publisher. In the latter case, it works much like a joint mailing. You help defray the cost of mailing the newsletter in exchange for letting your insert ride along. Both parties win.

* insert: 삽입 광고 ** defray: 부담하다 *** chiropractor: 척추 지압 요법사

다른 이들의 소식지에 기사나 삽입 광고를 기고하는 것은 / 값싸고 훌륭한 방법이다 / 새로운 시장에 도달하는 / 그리고 타 사업체에서 획득한 고객에게 다가가는. / 대부분의 소식지 발행사는 투고를 환영한다 / 다른 이들로부터의 / 소식지를 위한 내용을 찾는 것은 지속적 과제이기 때문에. / 만약 니가 이들에게 경쟁과 무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 쉬이 다른 회사의 소식지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예를 들어, 마사지 치료사는 척추 지압 요법사의 소식지에 투고할 수 있다. / 이 서비스들은 비슷하다 / 같은 독자에게 호소할 만큼 충분히, / 하지만 다르다 / 뚜렷이 구분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 너는 이야기를 제공하거나, / 혹은 삽입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 / 소식지 발행인에게. / 후자의 경우, 이는 단체 우편과 같은 효과가 있다. / 너는 소식지 우편 비용을 부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 니 삽입 광고가 같이 배송되도록 하는 대신에. / 양 쪽 다 이득이다.

Shean's KISS EBS

수능완성 15강: 문장 삽입, Check

Contemporary art has increased the difficulty of looking at, understanding, and enjoying art. Unexpected materials, unusual subject matter, and **unpredictable** formats have **challenged** familiar values and norms and in the process have **puzzled**, even **alienated** spectators. Popular culture has been more effective in connecting art with the public. Mona Lisa T-shirts and David tote bags, along with numerous other **reproductions** of mostly **renowned masterpieces**, have spread art in **informal** ways and to unexpected places. However, it takes more to understand art than wearing a T-shirt. But where to start? To **discern** what defines art in today's **vibrant** and ever-changing context may be exciting for experts, but it is **downright** frustrating for the audience.



Summary

1. 현대 예술: 기존과는 다른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오히려 감상자가 이질감을 느끼게 함
2. 대중 문화: 모나리자 티셔츠를 만드는 등 대중에게 예술을 더 효과적으로 어필
3. However, 티셔츠를 입는다고 예술 이해 X. 도대체 현대의 예술은 무엇인지 정의하기란 대중에게 완전 어렵



KEY Point

1. 예술은.. 어렵다..
2. alien(에일리언)이랑 alienate 연결시켜 외우면 쉽겠징. 중요 단어!



Vocabulary

1. contemporary art: 현대 예술
2. unpredictable: 예측 불가능한
3. challenge(v): 이의를 제기하다
4. puzzle: 당혹시키다
5. alienate: 소원하게 하다
6. reproduction: 재생산
7. renowned: 저명한
8. masterpiece: 걸작
9. informal: 비공식적인, 일상적인
10. discern: 구분하다
11. vibrant: 활기찬
12. downright: 완전히, 노골적인

